

# 선수 6명 모두 국가대표... '장애인 탁구 메카' 광주 빛났다

패럴림픽 폐막...광주시청 탁구팀 눈부신 활약



2011년 장애인실업팀 국내 첫 출범...생활 안정 운동 전념  
등급별 맞춤형 훈련·각종 국제대회 출전...기량 꾸준히 유지  
김영건·서수연·김정길 등 맹활약 은메달 5·동메달 2 수확

광주시청 탁구선수들이 5일 폐막한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눈부신 활약을 선보였다.

김영건과 서수연이 개인·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 2개씩을 일궈내며 이어 박진철은 단체전 은메달, 동메달을 따냈다. 김정길도 김영건과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남기원은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이 수확한 메달은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탁구 선수단이 일궈낸 은메달 6개 가운데 5개가 광주시청 선수들의 몫이다.

광주시청 선수들은 대회 출전 당시부터 주목받았다. 선수 6명 전원이 국가대표에 발탁됐기 때문이다. 김영건(세계 랭킹 2위), 서수연(3위), 남기원(3위)로 세계 정상급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청 탁구팀은 휠체어 탁구 부문에서 월드 클래스 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애초 목표로 잡은 전체 금메달 4개 가운데 2개를 광주시청 선수들에게 기대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지만 김영건과 서수연은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다.

광주시청 탁구팀의 선전에는 탁구 인프라가 한 몫했다. 지난 2011년 창단한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은 장애인스포츠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출범한 실업팀이다. 이를 계기로 선수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자연스럽게 유망선수들이 광주로 모여드는 등 선수환 구조가 정착됐다. '휠체어 탁구 국가대표가 되려면 광주에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체계적인 훈련은 선수들이 꾸준히 기량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선수들은 광주시청 인근 광주시 직장운동경기부 탁구 전용훈련장에서 하루 평균 4~5시간 땀을 흘린다. 대회 출전을 앞두고 야간훈련도 불사한다. 장애등급별로 맞춤형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코너워, 볼컨트롤, 리시브 등을 마스터하는 것은 기본이다. 휠체어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니 만큼 휠체어 운용도 선수들이 공을 들이는 훈련이다. 라이벌 관계가 형성된 선수들이 한팀에 있는 것도 기술적으로 도태되지 않는 비결이다. 대표적으로 김영건과 김정길은 라이벌이다.

해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출전하는 것은



김영건

광주시청 탁구팀의 원칙이다. 선수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광주시청 탁구팀은 해외 선수들의 기량과 공략법을 훤히 꿰뚫고 있다. 김영건에게 개인 결승전에서 패배를 안긴 터키의 외스트튀르크는 모두 15차례 만난 상대다. 그만큼 김영건이 세계 무대에 자주 출전했기 때문이다.



서수연

조재관 광주시청 장애인 탁구팀 감독은 "선수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해마다 국제 대회 출전을 거르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유럽, 독일, 프랑스, 슬로바키아, 터키 선수들의 기량이 급 성장하고 있는 만큼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길

한편, 한국 선수단의 도쿄 패럴림픽 목표는 금메달 4개, 은메달 9개, 동메달 21개로 종합순위 20위였다. 하지만 대회 폐막일인 5일 한국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2개로 41위에 자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 보치아 9회 연속 금메달

연장 접전 끝 일본 꺾고 우승

대한민국 보치아의 패럴림픽 '9회 연속 금메달'이 결정되는 순간, 경기장에서는 한국 선수단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호원(35·강원도장애인체육회)과 김한수(29·경기도), 최예진(30·충남직장운동경기부)으로 구성된 한국 보치아 페어(2인조) 대표팀은 지난 4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페어(BC3) 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의 가와모토 게이스케, 다카하시 가즈키, 다나카 게이코와 연장 접전 끝에 승리했다.

4연까지 4-4(3-0 1-0 0-1 0-3)로 맞선 한국은 연장전에서 극적으로 1점을 더해 고대하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년 리우 대회에서 브라질에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던 세 선수는 5년 만의 패럴림픽에서 정상에 올랐다.

한국 보치아는 1988년 서울 대회부터 2016년

리우 대회까지 8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해 왔다.

도쿄 대회에서 반드시 9회 연속 금메달을 따내겠다고 입을 모았던 대표팀은 그 약속을 지켰다.

사실 보치아 대표팀은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노영진(28·광주시)이 건강 악화로 급히 귀국하는 등 약재를 맞았다.

하지만 이날 금메달로 대표팀 모두가 활짝 웃게 됐다.

4연에서 일본에 동점을 허용하면서 살짝 위기가 왔지만, 연장에서 최예진의 침착한 투구가 승부를 갈랐다. 선수들은 의연했다. 정호원은 "이전 엔드를 다 잊어버리고 연장전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떨리지 않았다"고 했다.

최예진 역시 "떨리지 않았다. 정호원 선수를 믿고 했다"며 "선수촌에서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경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이문영 코치는 "정호원은 워낙 내색하지 않는 친구다. 항상 목욕하러 자리를 지키는 친구인데, 어제만 해도 부담이 컸는지 자면서 이불 안에서 걱정



지난 4일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보치아 페어(BC3)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 최예진, 정호원, 김한수가 태극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으로 투구하기 어려운 뇌성마비 장애인을 포함한 사지 마비 장애인이 출전하는 BC3 등급에서는 선수들이 흥통 등의 도구를 사용하며, 경기 파트너의 도움을 받는다. /연합뉴스

하는 듯한 말을 하더라. 하지만 티를 안 내고 묵묵히 버티워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며 "세 선수 중 정호원이 '말이'로서 잘 이끌었고, 동생들은 잘 믿고 따라와 줬다. 금메달을 딴 건 셋이 한마음으로 한 팀이 돼서 딴 것이다. 아니었으면 못 땀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 첫 정식종목 배드민턴

### 김정준 '값진 은메달'

일본 선수와 접전 끝 아쉬운 패배

'세계랭킹 1위' 김정준(43·울산중구청)이 2001년 일본 신성에게 아깝게 금메달을 내줬다.

김정준은 5일 오전 9시 일본 도쿄 요요기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배드민턴(스포트즈급 WH2)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가지와라 다이키(20)에게 세트스코어 0-2(18-21 19-21)로 패했다.

이로서 김정준은 한국의 첫 패럴림픽 배드민턴 은메달을 획득했다. 배드민턴은 이번 도쿄 대회에서 처음으로 패럴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됐다.

4강에서 김경훈(45·울산중구청)을 2-0으로 완파한 가지와라는 연달아 한국 선수들을 제압했다.

김정준은 1세트를 팽팽한 접전 끝에 18-21로 내줬다. 한때 9-14까지 밀린 김정준은 67회의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끈질긴 랠리를 이겨내며 14-15로 따라붙었다.

이후 5점을 내리 때내며 16-15, 역전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지와라가 게임 포인트를 먼저 잡았고, 김정준이 마지막 셔틀콕을 받아내지 못하며 1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서 김정준은 18-18로 균형을 맞춘 뒤 승부를 이어갔으나, 역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채 가지와라에 패했다.

가지와라는 세계선수권 6회 우승을 경험한 세계 1위 김정준을 꺾고, 배드민턴 WH2 종목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김경훈은 경기 후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면서도 "어제 가지와라와의 4강전에서 힘을 너무 썼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이 안 풀렸다. 1세트는 괜찮았는데, 2세트에 다시 팔이 뭉치면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힘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레슬링 메카' 함평군청 금 2·은 1

경찰청장기대회 출전 3명 모두 메달 획득

함평군은 함평군청 소속 레슬링 선수단이 지난 달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3회 경찰청장기 레슬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함평군 레슬링팀은 남자부 3개 체급에 출전해 김종민(67kg급)과 김기빈(63kg급)이 각각 금메달을, 양시은(77kg급)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함평군 레슬링팀은 1984년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김원기 선수를 비롯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3명이나 배출해 냈다. 지난 2019년 재창단한 이래 매년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레슬링 메카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성용 감독은 "힘든 훈련을 잘 따라온 선수들과 응원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그동안 선수들과 감독이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체급별 1위를 한 선수에게 경찰 특별채용 면접 기회가 주어지며, 이중 최종 4명이 채용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경찰청장기 레슬링대회에서 메달을 딴 함평군 레슬링팀 선수와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시은·김기빈 선수, 윤성용 감독, 김종민 선수.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2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코다
- 3관 싱크홀
- 4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5관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6관 인질
- 9관 모가디슈
- 7관 씨네카를 싱크홀, 귀문
- 8관 씨네카를 인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서사무엘 UNITY**  
일시 : 2021. 09. 14.(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수를 보내다 : 독주회 III 양인모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 2021. 09. 06.(월)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